



경제통통



FOCUS

- 밀랍인형 전문 「그레뱅 뮤지엄」, 2차 최초로 서울에 개관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

ZOOM IN

- 中 IT글로벌기업, 서울 유망 스타트업에 100억 원 투자
- 서울시 안고 있는 고민 해결할 '혁신형 사회적기업' 10곳 선정

HOT ISSUE

-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일자리위원회 설치
- 서울시민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증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김가영 gykim@seoul.go.kr

FOCUS | 01

밀랍인형 전문 「그레뱅 뮤지엄」 또 최초로 서울에 개관

세계적 밀랍인형 박물관인 프랑스 '그레뱅(Grevin)'이 7월말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 문을 열었다.

「서울 그레뱅 뮤지엄」은 14개 콘셉트와 주제 공간에 한류스타와 국내·외 유명인사, 한국의 역사인물 등 총 80개의 밀랍인형이 전시되어 있으며, 기존의 밀랍인형 뮤지엄을 구성했던 해외스타와 유명인사는 물론 한류스타 밀랍인형도 다수 전시된 세계 최초 한류스타 전문 박물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문화콘텐츠 보강으로 관광 활성화 기대, 전시 기획 등 관련 전문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서울시는 그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볼거리와 체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이번 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보강 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시진핑, 성룡, 이소룡, 랑랑과 더불어 싸이, 김수현, 이민호, 장근석, 현빈 등 한류스타 밀랍인형이 전시되어 있어,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박물관 운영을 계기로 인형제작과 유지보수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IT, 제조업 등과 연계된 것이 대부분으로 그레뱅과 같은 문화·관광분야의 투자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 그레뱅 뮤지엄 개관을 시작으로 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세계적 기업 유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

- ▶ **시설비 보상** | 임차인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3년째 퇴거를 요구받았다. 당초 리모델링 후 재입점과 시설비 보상을 구두로 합의했으나 임대인은 재입주만 보장하겠다고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시 조정결과,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A씨는 재입주 없이 5,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 ▶ **임대인의 협력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금 지급** | 임차인 B씨는 신규임차인(권리금 3,500만 원)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거절당했고 이후 계약종료 2개월전 또 다른 신규임차인(권리금 5,000만 원)과의 계약체결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또 계약을 거절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은 B씨는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

서울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재 및 조정자로 나서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분쟁조정제도'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이 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 명예갈등조정관 중재로 분쟁조정제도 운영

분쟁조정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에 있는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이들 조정관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는다. 특히 이러한 조정은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합의 내용의 실행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 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ZOOM IN | 01

中 IT글로벌기업, 서울 유망 스타트업에 100억 원 투자



중국의 IT서비스 글로벌기업 아이소프츠톤(iSoftStone)이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서울의 유망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아이소프츠톤은 서울의 역량 있는 창조혁신기업이 내실을 키워 신형 IT 강국인 중국 무대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지원하며, 향후 투자규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주력분야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하나로, 이미 우수한 기업과 인프라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에 자사 IT 융복합 R&D센터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함께 세부 진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이소프츠톤은 시스템 구축 아웃소싱 업무를 중심으로 성장한 SI 기업으로, 최근 중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모바일 분야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8월 초 박원순 시장은 아이소프츠톤 베이징 본사를 직접 방문해 류텐원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R&D센터 서울 유치 공동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서울의 우수한 ICT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중국 기업들의 IT 융복합 R&D센터 서울 유치 공동 추진, ▲서울의 역량 있는 기업의 발굴 및 중국 진출 지원, ▲시 우수정책 프로그램 국제 확산 상호협력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1만여 개의 IT기업과 고급인력,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러시아(RSS), 일본(도레이), 벨기에(솔베이) 등 우수 기업의 연구소가 진출해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서울 R&D센터 유치에도 힘을 보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이 안고 있는 고민 해결할 ‘혁신형 사회적기업’ 10곳 선정

서울시가 서울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제시한 사회적기업 10곳을 선정해, 맞춤형 기업컨설팅은 물론 기업발전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들 기업에 최대 5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최대 4천 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재생,
유통/급식 등 기업,
초기 사업비
5천5백만 원 등
기업당 최대 1억 원
지원



이번에 선정된 혁신형 사회적기업은 ▲주거/도시재생 ▲유통/급식 ▲문화/교육 분야 등 10곳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별 담당컨설턴트’가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주기적 경영컨설팅을 비롯해 공공구매와 전문투자기관과

연계한 투자도 병행하여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종료 후 최종 평가를 실시해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높은 주거비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공유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온라인상에서 저렴하고 좋은 환경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세어하우스우주(주)’ <세어하우스 프랜차이즈 사업>, 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한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활성화해 대중교통 및 주차 취약지역의 주민 이동편익을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절감에 기여하는 ‘(주)한가’ <승용차 공유정거장 구축 사업>, 저소득층 아동의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기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참여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 등을 향상시키는 <뫼든지 예술학교> 등으로 다양하다.

서울시는 “혁신형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공공서비스 분야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서울이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OT ISSUE | 01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일자리위원회 설치

서울시가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민·관 거버넌스 「서울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그동안 실·본부·국별, 정책 대상별, 수단별로 각각 운영되던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하는 동시에 일자리 수요자인 시민, 기업 및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상시화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정책을 위해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8월 12일 「제1차 서울시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자리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일자리창출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공공·민간 고용지원서비스 및 고용환경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 정책과의 연계 ▲노사화합, 노사안정근로자 권익보호 ▲중앙정부 및 민간영역과의 협력기능 강화 ▲일자리정책 성과 및 시책사업 일자리 효과 평가 등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현장을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산업·경제·민간단체 각계 대표, 전문가 등 본위원 30명과 실무위원 19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인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서울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고민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민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증가

올해 상반기 인터넷 쇼핑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작년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10,522건으로 전년 동기 6,118건에 비해 72% 늘었다”고 밝혔다.

<구매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인터넷 쇼핑물 피해가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상반기 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는 올해 3,898건(37.0%)으로 약 7.6배 늘었다. 그 뒤는 오픈마켓 607건(5.8%), 소셜마케팅 178건(1.7%), 인터넷 공동구매 156건(1.5%)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거래 피해 약 7.6배 증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피해 유형

특히 저렴한 가격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해외거래는 해외 쇼핑물 특성상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국내와 달라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인 해외구매 방법에 대한 피해유형은 ▲구매대행 3,841건(98.54%)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 28건(0.72%) 순이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5,054건(48.0%)으로 최다였고, 배송지연이 3,374건(32.1%), 운영중단·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가 728건(6.9%), 제품불량 및 하자 피해가 567건(5.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과 배송지연이 대폭 늘었다.

<피해품목>은 의류·속옷이 5,123건(48.7%),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 및 귀금속이 2,691건(25.6%)으로 패션 관련 품목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유아·아동 완구가 3.6%(374건), 가구·주방 잡화가 3.2%(332건)로 나타났다. 해외구매의 대부분이 해외브랜드 의류나 신발 등 패션제품이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시 전자상거래센터 또는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 에서 신고하면 도움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